

“미국「에모리」대학 국제간호교육센터”의

再教育記

강 경 자

<부산복음간호전문학교교조교수>

♣ 응기로 시작했던 初行길

대한간호 제12권 제3호를 통해 “미국 「에모리」대학 국제간호교육 「센터」에서 재교육자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응기를 내어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였던 바 왕복여비, 학비 및 숙식비 일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의 초청장을 받게 되었다. 이때가 작년 8월 말경, 즉 10월에 시작하는 “Maternal and child health and family planning”의 교육과정이었으나 부산에 있던 관계로 여권 수속 일체를 여행사에 맡기고 모든 것은 단사형통하거나 믿고 있다가 관계부처 장관 추천에 있어 “간호원이니 보사부로 가시오”, “간호학교 선생이니 문교부로 가시오”하는 통에 여권이 제 날자에 못나오고 결국 문교부장관 추천으로 여권, 「비자」를 받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다음 1월 6일부터 시작되는 「코스」 “Medical Nursing Related to Illness Caused by Dietary Deficiencies”에 참석키 위해 12월 31일 김포공항을 떠났다.

외국여행은 처음이었고 또 오래전부터 꼭 한번 가보고 싶던 나라이었기에 마음은 마냥

부풀고 비교적 비행기안의 조건도 좋은 편이어서 집에 두곤 애들 생각만 아니었다면 그야말로 Los Angeles까지는 유쾌한 여행이 되었다. 그러나 처음의 당황함은 L. A. 공항에서 저녁 10시쯤 친구집에 전화거는 일로 부터 시작되었다. 마침 년말년시여서 미리 연락이된 친구(연락을 비행기 이름, No.도 안쓰고 서울 몇시 출발 도착 몇시라고만 하여 마중 나올 수 없었다하여 웃었지만)는 초대받아 식구 모두 외출중이라 빈집이었고, 공중전화를 계속 걸어도 “통화가 안됩니다 다시 걸어주세요 이것은 녹음한 것입니다”만 계속되어 아주 암담한 마음이 들었었다. 다행히 다른집과 전화 연락이 되어 그 집에서 하루묵고 예정대로 여행을 계속하게 되었다.

최종 목적지인 「조지아」주 「아틀란타」에는 1월 4일 오후에 도착하여 6일에 시작되는날까지의 지루한 기다림과 외로움이란 “오! 하나님이며 왜 제가 이곳에 왔을까요” 할 정도였다. 마침 그 교육과정에 참가한 다른나라에서 온 본들과 인사를 나누고 그분들 친지의 차를 빌어타고 첫번째 「쇼핑」

으로 다소의 우울증을 달랠 수가 있었다. 미국 사람들의 치밀함이란, 비행장에 누구도 나와주지는 않았지만 「호텔」까지 찾아갈 수 있게한 배려라든지, 숙소안 부엌에 식빵, 우유, 「젤」 「커피」등 준비해두어 2~3일사는 동안의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않게 하였고, 시작하는 날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강의실까지의 지도, 예의범절에 관해, 주의해야할 점 등 충분한 배려가 주어졌다.

5개국 6명의 수강생이 일행

첫날은 「리셀손」으로 부터 시작되었는데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서 2명, 「가메룬」에서 1명, 「가나」에서 1명, 「자마이카」에서 1명, 나머지 모두 6명이 이번 교육과정 「멤버」이었다.

多角的 教育 실시하는 「에모리」대학교

대한간호협회 현회장이신 전 산초박사님께서 석사과정을 하셨던 「에모리」대학은 전혀 생소한 이름의 대학은 아니었다. 「조지아」주 「아틀란타」시 행정구역내에 위치한 「에모리」대학은 1836년에 설립된 종합대학



「아프리카」各國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다코우현국 앞에서의 강연(오승욱)

이며, 「아틀란타」는 미국 남부의 산업과 문화의 중심지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작자 「마가렛·미첼」여사의 고향이기도 하며 또한 점차 국제적인 도시로도 변모되어 가고 있었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국제무역회관이 건립중에 있었으며 「에모리」대학교 근처에는 전염병학에 관련된 요원들을 특수연수시키는 “Center for Diseases Control”이 있어 대 과정마다 참석하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는 방문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에모리」대학은 6,000 이상의 학생과 가족을 포함하는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었으며 대학 및 대학원에서 전문직업교육 및 비전문직업교육을 다각적으로 할 수 있었다. 이 중 간호학교에 학사, 석사 및 학위없는 10주과정의 국제 간호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교육과정은 특히 세계 개발도상 국가에서 일하는 간호원들에게 간호의 개선 및 건강문제 해결을 돕는 것을 교육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한 과정에 25명까지 참석하게 되

었다.

한 과정에서 다루는 각 논제는 1)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2) 전염병관리, 3) 내외과 간호학, 4) 영양실조로 인한 내과적인 질환의 간호문제, 5) 정신건강의 증진 및 정신과 환자의 간호문제 등이다. 이 모든 과정에는 논제와 관련된 집중적인 강의, 실습 및 이들과 관계되는 기관의 견학이 포함되었다. 교육담당자는 「에모리」대학, 대학병원, 간호학교교수 기타 이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한번 권장하고 싶은 과정

내가 참석하였던 과정의 논제는 “영양 실조로 인한 내과적인 질환의 간호문제”로서 사실 처음에는 이러한 제한된 논제를 갖고 어떠한 내용의 교육과정이 될 것인지 궁금하였다. 우선은 「스케줄」이 「타이트」하지 않아서 긴장되지 않았고 강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어서 별 불편을 느끼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끝날 즈음에는 결코 미국 사람들에게는 숙된 표현으

로 “공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철저함을 느꼈고, 무언가 학생스스로 연구하여 각자 자기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고 논제의 관련된 여러가지 지식을 채워 주었다.

영양의 기초적인 개념, 통계학, 산전산후 영양실조의 필요성과 영유아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성장발육 측정법, 특수질환의 식이요법(당뇨병 및 phenylketon uria diet), 특히 단백질의 분석 및 중요성, 각 학생나라의 영양에 대한 고찰, 문화와 영양관계, 나아가서 병원행정 및 교육방법등에 대한 강의는 새로운 지식과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재정리의 원천이 되었다. 강의 방법도 강사마다 독특한 방법을 갖고 있어 시간마다 새로운 기대를 갖고 강의실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학생들의 나라에서 생산되는 음식물로서 영양섭취를 골고루하여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는 것은 물론, 계속 건강을 유지하며 생을 영유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식생활 개선에 대해, 특히 성장발육에 있는 어린이들이 매일 꼭 섭취해야할 식품군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이 교육과정을 통하여 간호원들이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역할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새삼 깨달았고 더 많은 한국의 간호원들도 이 교육과정에 참석하시기를 권장하고 싶다.